

(사)民族美學研究所 연변지역 공연

몽산탈춤 한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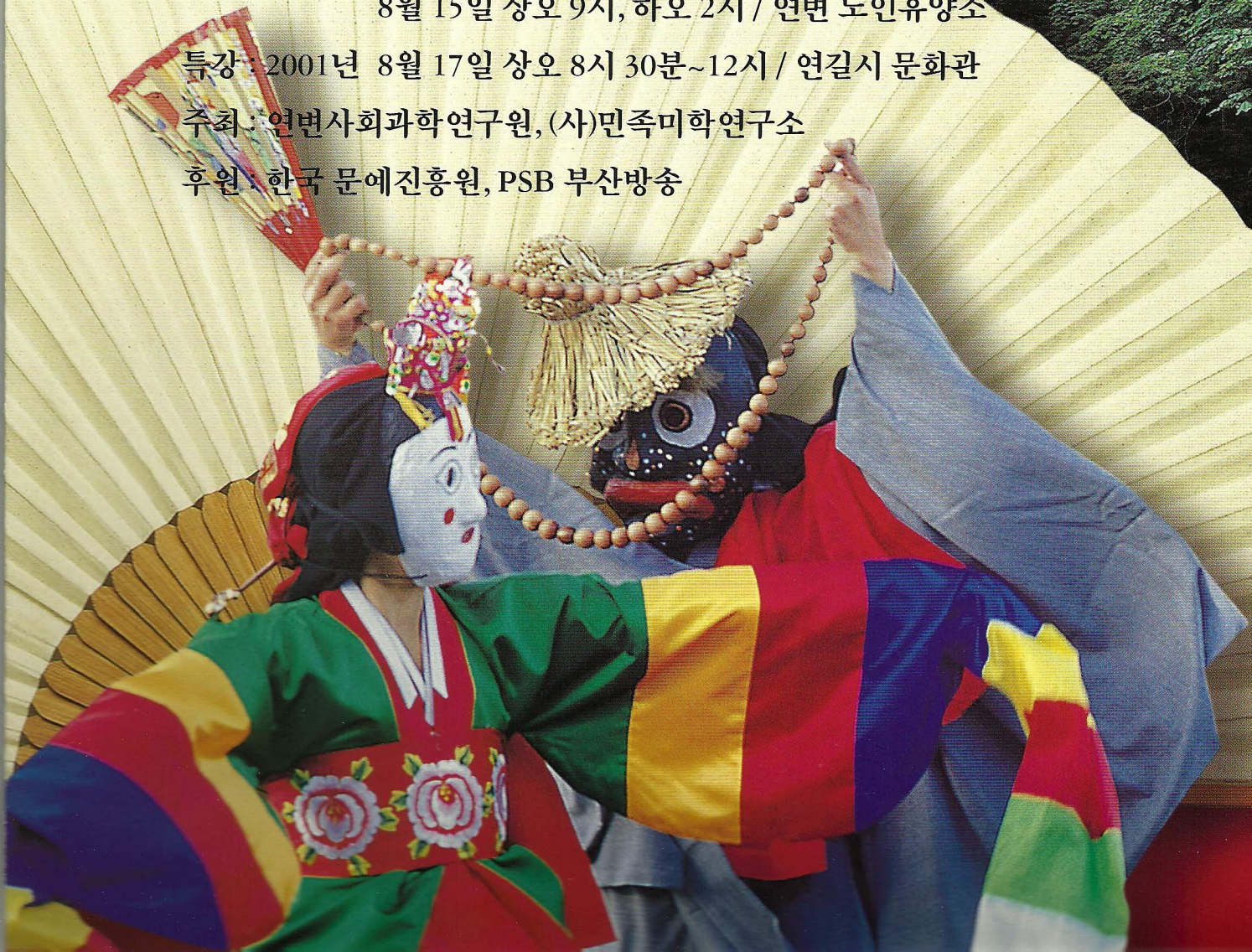
공연: 2001년 8월 14일 상오 10시 / 연변 민속촌

8월 15일 상오 9시, 하오 2시 / 연변 노인휴양소

특강: 2001년 8월 17일 상오 8시 30분~12시 / 연길시 문화관

주최: 연변사회과학연구원, (사)민족미학연구소

후원: 한국 문예진흥원, PSB 부산방송



봉산탈춤

출연

* 四上佐춤 마당

이정화

김경미

낙동강 서쪽의 '오광대' 그리고 경북 김천으로부터 동해안으로 가는

정

춤 마당

이성원

황해순

강동옥

박성연

김경미

김현숙

김현정

전병복

· 취발이 마당

이정화

허경미

수 강동옥

이 이미화

이 전병복

영감 마당

할미 이미화

황해순

리집 김경미

허경미

노인 이성원

현

기록

은

열

감독

완

오늘날까지 전해오고 있는 우리의 탈춤은 지역분포에 따라 대여섯가지로 나뉘어진다.

서울, 경기 일원의 '산대놀이'와 황해도 지역의 '해서탈춤', 그리고 낙동강 동쪽의 '들놀이'와 낙동강 서쪽의 '오광대', 그리고 경북 지역으로부터 동해안을 타고 올라가는 '별신굿' 등의 것이 그러하다.

그 밖에 유랑예인의 탈춤과 풍물대굿이나 무속굿에서의 탈춤도 있다.

봉산탈춤은 황해도 지역의 대표적인 탈춤의 하나로서 오월 단오날 노는 세시풍속의 하나이다.

황해도 지역은 5일장이 서는 장터라면 어디든 1년에 한번씩 탈춤이 놀아졌다고 한다.

그만큼 해서탈춤은 경남일원의 오광대와 더불어 지역분포도에서 밀접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 지역주민의 탈춤에 대한 절대적인 환호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본래 봉산탈춤을 놀았던 경수대는 앞산 밑 강변의 평평한 터로

석벽 밑에 무릎 높이의 돌축대를 쌓은 마당이었다.

나중 사리원으로 놀이판이 이동하게 되어서는 경암루 앞 광장에 반원형의 다락을 둘러쳐 세우고

그 안쪽 마당에 명석을 깔아 탈판을 마련하였다.

여기에 모닥불과 햇불을 밝히고 밤새 놀아 새벽을 맞이하였다고 한다.

한창때에는 관중이 2만내지 3만명이 운집하였다고 하니

봉산탈춤에 대한 그 열기를 가히 짐작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전승탈춤은 사악한 것을 물리치고 경사스런 데로 나아가는

새해맞이 축원의례 또는 성장의례, 수확의례, 초파일놀이로서 종교의례적 행사였는데,

점차 도시성향의 민중오락적인 연희물로 시대감각에 맞추어 나아갔다.

그러나 우주와 자연과 인간과 사회가 공동의 삶을 놓고 편안에 어울려 들고, 이에 따라 연희자와

관중이 어우러져 함께 판을 짜는 공동체적 양태는

크게 변함이 없이 가꾸어 가도 좋은 연극적인 자산임에 분명하다.

탈춤은 탈을 쓰고 춤을 추면서 재담도 하고 노래도 하는 놀이적인 연극으로서

오늘날로 치면 총체연행물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봉산탈춤은 다른 탈춤에 비해 탈과 춤의 표현성이 대담하고 거침이 없어 강렬한 인상을 던져 준다.

특히 목중춤은 요철굴곡이 심한 귀신행동의 탈에 운율의 굴곡이 깊은 사설과 재담,

화려한 더그레와 긴 한삼으로 하늘을 가르듯 휘뿌려 감고 푸는 춤사위,

그리고 힘차게 도약하는 품이 마치 고구려의 상무정신을 이어받은 듯

장쾌한 남성춤임을 남김없이 보여준다.

그리고 한마디 말도 없이 몸짓과 춤만으로 파계승의 심리와 행적을 엮어가는 노장춤은

우리 춤언어가 얼마나 정확하고도 다양한 의미체계를 지녔는지 능히 짐작케 한다.

또한 황해도 특유의 빠른 굿거리장단에 몸서리치는 미알할미의 춤과 재담을 통해

당시 곤궁하고 억눌린 삶 속에도 강인하게 버티기는 민중의 질긴 숨결을

눈물겹도록 고맙게 느낄 수 있다.



김현

* 8목

첫목

2목

3목

4목

5목

6목

7목

8목

* 老丈

노장

소마

신장

원승

취발

* 미알

미알

영감

덜머

무당

남강

반주

조철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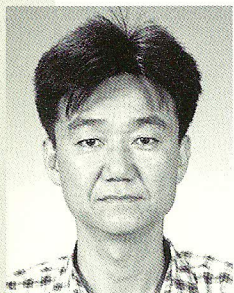
박지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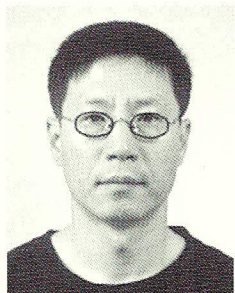
이상

예술

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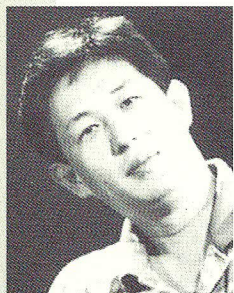
황해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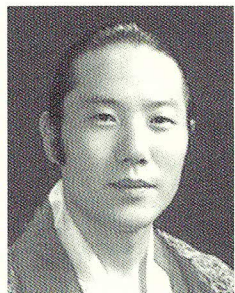
강동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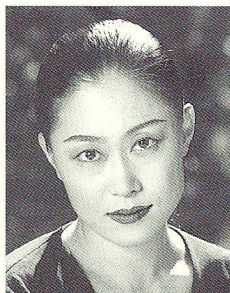
이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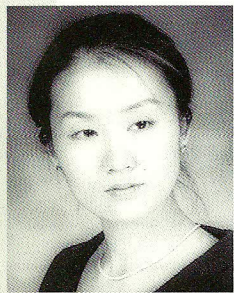
전병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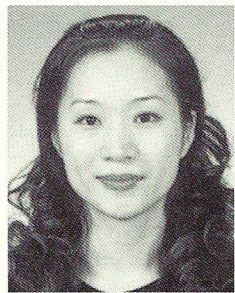
이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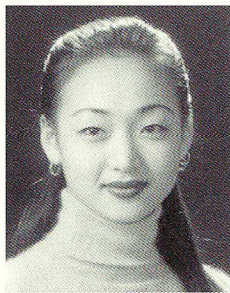
박성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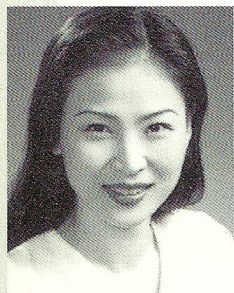
김경미



이미화



허경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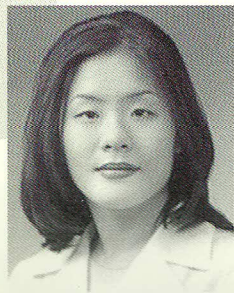
김현정



김현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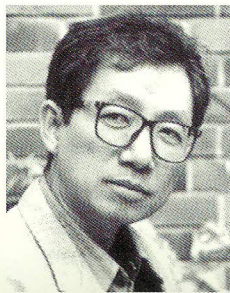
반주:조철현



영상기록:박지은



연출:이상열



예술감독:채희원

봉산탈춤 7마당

제1과장 4상좌춤

동서남북 4방신에게 제를 올리는 의식춤으로서 부정한 것을 물리쳐 놀이판을 정화하고 온 세상, 우주만물과 더불어 모인 사람 모두의 안과태평을 비는 특별임마당이다.

제2과장 8목중춤

춘흥에 겨운 8명의 목중이 풍류소리에 반겨듣고 차례로 나와 육체적인 활력을 노래와 춤으로 유감이 없이 구가한다. 나중에는 목중들이 모두 나와 모닥불을 뛰어넘는 활기찬 뭇동춤으로 결판지게 어울린다.

제3과장 사당춤

화려하게 치장을 한 사당을 중심으로 여러 거사들이 나와 서도소리와 춤으로 한 판 난장을 트는 호화로운 막간여흥대목이다.

제4과장 노장춤. 신장수. 취발이춤

불도에 정진하던 노장이 속가에 내려와 어여쁜 소매의 능란한 유혹에 빠져 파계한다. 정신세계의 한 정점이 무너진 반면 육체적 현실감을 되찾은 노장은 신장수와 원숭이의 놀림을 완력으로 물리친다. 이어 천하한량 취발이를 맞아 소매를 가운데 두고 대무를 벌이다가 끝내 몽둥이찜질을 못견디고 쫓겨난다. 취발이와 소매는 아이를 낳고, 이들이 일시 정착한다.

제5과장 사자춤

노장을 파계시킨 목중들을 벌 주려 사자가 내려온다. 이에 모두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면 사자는 이들과 더불어 화해의 춤을 춘다.

제6과장 말뚝이. 양반춤

하인 말뚝이가 몰락양반 3형제를 이끌고 나와 이들과 입씨름을 벌인다. 현실방향감각을 잃고 세상물정에 어두운 양반은 스스로 어리석음과 비리에 묶여 능란한 말뚝이의 말솜씨를 당해내지 못한다.

제7과장 미알춤

난리통에 헤어진 영감을 찾아 갇은 고생을 하던 미알할미는 영감을 만나 잠시 회포를 풀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영감의 애첩은 용산삼개 덜머리집과 사랑싸움에 얽혀 영감에게 치여 죽는다. 영감은 애첩을 데리고 나가고, 이어 남강노인과 함께 무당이 등장하여 죽은 미알할미의 혼을 달래주기 위해 지노귀굿을 한다. 미알할미를 좋은 곳으로 천도하는 곳으로 놀이판의 뒤풀이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놀이판의 마지막 정화를 위해 탈을 태우는 의식을 함께 올린다.



배움의 자리, 문화의 동질성을 깨치는 계기되길

연변지역은 우리 조선족이 밀접하게 모여사는 곳입니다. 중국내 자치구를 이루어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소수민족 지역가운데에서도 이곳은 애국애향심과 문화·교육열이 어느 곳보다 단연코 앞서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생각컨대 일제 강점기 이래 항일독립투쟁의 뜨거운 피내림이 지금까지 오롯이 이어져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멀리는 동이족 이래 하늘의 빛과 땅의 그늘이 몸 속에서 얹혀 하나되어 신명과 흥이 온 몸으로 수시로 나고 드는 민족 특유의 열정 때문이기도 하겠구요. 특히 명절 때나 크고 작은 잔치에 이웃이 모여 일손을 돕고 노래와 춤으로 어울리는 전래의 아름다운 풍속을 이곳 연변지역에서 고스란히 간직해 온 것들을 두고 볼 때 그저 놀라움고 감개무량할 따름입니다. 그릇된 이념과 물질만능의 생활풍토와 외세에 의해 할퀴운지 오래인 남과 북의 민속을 두고 볼 때 이 얼마나 고마웁고 다행스런 일입니까. 이를 지켜오신 분들께 무한한 존경심을 보내오며 우리는 옷깃을 여미고 이 사실의 현대적 의미를 곰곰히 생각해 보고 살펴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탈춤연구모임이 이곳 민속의 고장 연변에서 봉산탈춤을 올리는 것은 공연발표이기에 앞서 소박한 현장연구활동의 하나일 따름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많은 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실 덜 다듬어진 표현기량으로 신명스런 현장의 열기를 얼마나 둔구어낼 것이겠습니까마는 우주와 자연과 인간과 사회가 한 몸이 되는 탈판이기에 신이 많으신 연변 어르신네와 어울려 판을 함께 해나가다 보면 어느덧 탈춤의 어쩔 수 없는 열기에 빠져 모두가 한 몸이 되고 말겠지요. 다만, 이를 통해 우리는 비록 나라와 땅의 갈림이 있을지라도 민족적 정체성과 문화적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첫 계기가 되기를 소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놀이를 통해서나마 굶은 일 많은 어려운 살림살이에다 이를 깨치고 새 삶의 기운을 북돋게 하는 새 빛이 비치길 비는 것이지요. 아직 학업도중에 있는 본 탈춤연구모임을 이곳 놀이판에 세워주신 최봉석 선생님을 비롯하여 연변사회과학원의 여러 선생님들의 따뜻하고 깊은 배려에 거듭 고마운 마음을 다하고자 합니다.

연변에 첫선을 비는 봉산탈춤 한마당

한국 부산 민족미학연구소 소장 채희완 교수님을 비롯하여 '봉산탈춤' 연구회 선생님들이 수천리 먼 길도 마다않고 우리연변에 오셔서 뒀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삼가 뜨거운 인사를 올립니다. 한국 부산 민족미학연구소 산하 그 연구회 선생님들은 한국에 널리 알려져 있는 다양한 민속춤들을 깊이 있게 발굴·연구하시어 우리춤의 정신과 원리, 춤사위들을 돋보이는데 뛰어난 성과들을 올리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봉산탈춤'에 대한 연구입니다. '봉산탈춤'은 잡귀를 물리치기 위한 벽사의 의식춤과 파계승에 대한 풍자, 관료계층에 대한 저항, 서민층의 가정비극과 빈곤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한국의 전형적인 탈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탈춤을 오늘 우리 연변에 오시어 선보인다고 하니 정말 고마운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절호의 기회는 우리들에게 잊혀져 가는 우리 민속춤의 생명을 되찾고 그 속에 숨결이 배인 우리 춤정신을 되새기도록 큰 힘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연성공을 미리 축하하며 다시 한번 고마운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